나주 전기차 보급량 전남 1위

하반기 100대 추가…이륜차 50대 10월 공급

최대 1,760만원 지원…내일부터 신청·접수

전남 도내 전기자동차 보급량 1위 지자체인 나주시가 올 연말까지 친환경자동차 1,500대 시대를 연다.

나주시는 올 하반기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해 친환경차 150대(전기차100·이륜차50) 보급을 목표로 '2021년 전기차 2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액은 최대 1,760만원이다.

신청 대상은 2021년 8월 10일부터 현재까지 나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법인·단체로 오는 15일부터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구매 희망 차종의 자동차 제조·판매사(영업소·지점)을 방문,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차종은 환경부 인증을 통과한 차량(전기자동차 통합포털 ev.or.kr에서 확인 가능)으로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 미출고 시에는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기 때문에 유의해야한다.

전기이륜차의 경우 지난 5월부터 100대를 보급 중이며 10월 중 50대를 추가 보급할 예정이다.

시는 친환경차 민간보급사업을 개시한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공공·민간용 전기차 1,332대를 보급했다.

하반기 150대를 더하면 전기차 보급물량은 1,500여대에 달할 전망이다.

이 같은 수치는 나주시가 역점 추진하는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비전의 세부 성과 지표인 '2025년까지 전기차 3,000대 보급' 목표량의 50%에 해당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 3년 간 도내 가장 많은 전기차를 보급함으로써 에너지수도 나주의 위상과 친환경차 선도도시 입지를 굳건히 다져왔다"며 "내년도 400대 이상의 전기차 보급과 더불어 친환경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시설을 비롯한 인프라 확대에 힘써가겠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2차) 공고문은 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에너지신산업과(061-339-8392)로 문의하면 된다.

/나주=이재순 기자

한국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이 최근 '영광군 안마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한국수자원공사 제공

수공 박재현 사장, 안마도 현장점검

132억 투입…주민 안정적 용수 공급 기대

한국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이 '영광군 안마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 현장 점검에 나섰다.

13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상습적인 물 부족을 겪고 있는 도서 지역의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 약 2년간의 공사를 거쳐 오는 10월 말 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지하수 저류지는 도서 해안지역 지하에 차수벽을 설치해 바다로 흘러가는 지하수를 막아 양질의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친환경적인 시설이다.

이번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한 안마도 사업은 전남지역 섬 지역에 설치된 첫 번째 사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약 132억원을 투입한 이번 사업으로 물 부족에 어려움을 겪던 약 200명의 안마도 주민들에게 하루 100톤의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추석 명절을 맞아 안마도 주민 130여 가구를 대상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코로나19 방역물품 의약품 키트도 전달했다.

박 사장은 "국민 모두가 물 복지를 누려야하고 이는 우리 공사의 소명이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하수의 가치를 되새기고 앞으로 미래를 위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연 기자

장흥통합의료병원이 최근 전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장흥군 제공

장흥통합의료병원 마음건강치유센터 운영

군민·공직자 대상 힐링 프로그램 진행

장흥군은 최근 장흥통합의료병원에 '전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를 설립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마음건강치유센터는 코로나19에 따른 우울, 불안, 스트레스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도내 공직자와 장흥군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장흥통합의료병원이 가지고 있는 의료자원과 장흥군 편백숲 우드랜드가 가진 환경자원을 활용해 ▲전남도내 공무원 대상 '마음 쉼' 프로그램(2박3일) ▲장흥군 어르신 대상 '마음은 청춘' 프로그램(1일) ▲다문화가족 대상 '어울림' 프로그램(1일)이 있다.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위해 지난 8월 1박 2일의 일정으로 전남도와 장흥군 공직자의 사전 시범 운영을 진행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최근 운영에 들어갔다.

또한 마음건강치유센터는 전남도, 장흥군, 국립나주병원, 원광대 등 4개 기관이 협력해 운영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을 비롯해 운영·서비스 수준 제고 및 전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심리 상담도 지원키로 했다.

장흥군은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시설 활용 프로그램 운영 연계, 국립나주병원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건강증진사업 자문·전문가 등과 연계한 심리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원광대는 장흥통합의료병원을 통해 마음건강치유센터 운영 계획 수립을 비롯해 프로그램 운영·홍보 등 센터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맡는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혜택 증가 효과도 함께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화순 독립유공자 DB 구축

지역 최초 연구용역 진행

화순군이 전남지역 최초로 지역 독립유공자 전수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

13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7월 전남대와 연구 용역 계약을 맺고 화순지역 독립운동사 재정립과 지역 역사 문화유산 발굴, 독립운동 정신 계승 등 지역 역사 문화 콘텐츠 제작을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군은 13개 읍면의 독립운동 전·후 상황 실태조사, 독립운동가와 가족 커뮤니티 조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지역 역사 문화 콘텐츠 제작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자료 부족으로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의 서훈도 신청한다.

화순지역에서 발생한 ▲구한말 의병운동 ▲동학농민운동 ▲3.1운동 ▲국내 항일운동 ▲계몽운동 ▲민족교육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 등 사건과 관련한 ▲인물 ▲가족 사항 ▲생가 ▲독립운동 장소 ▲유물(문헌, 도구)에 관한 제보도 받는다.

관련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군민은 화순군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061-379-3262)과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보하면 된다. /화순=이종백 기자

함평 월야면 행복농촌 콘테스트 금상

농촌지역개발사업 부문

함평군 월야면이 전국 107개 시·군 1,994개 마을이 참가한 '제8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금상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함평군은 13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지난 9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콘테스트에서 월야면이 '농촌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분야에 참가,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주민과 지자체가 협력해 활력 넘치는 마을을 만들고, 우수사례를 발표 및 공유하는 행사로 마을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대회는 '마을만들기' 3개 부문(소득·체험, 경관·환경, 문화·복지)과 '농촌만들기' 2개 부문(농촌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농촌 빈집·유휴시설 활용 우수사례)으로 나눠 평가가 진행됐다.

월야면은 읍·면 단위로 추진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농촌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부문에 참가해 지난 2015년에 완공된 '월야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성과를 공유했다.

월야면은 지난달 온라인 현장심사 등을 거쳐 25개 마을로 추려진 본선 진출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후 대국민 문자투표, 사전설명회, 유튜브 생중계 등 다양한 심사를 거쳐 최종 1등을 차지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달맞이문화센터에서 주민의 문화 복지 증진과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한 것이 높이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함평=윤예중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장흥 수문수산, 이웃돕기 성금 기탁

장흥군 안양면 수문수산 김동한 대표가 최근 추석을 앞두고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안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복지 특화사업 추진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기부를 했다"며 "추석을 맞아 소외되고 외로운 주민들에게 작은 정성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양현 안양면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도움을 주신 김동한 대표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면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장흥=이옥현 기자

나주 다도면, '다가치·다도맘' 밑반찬 지원

나주시 다도면이 밑반찬 배달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줄어든 이웃의 건강과 안부를 점검한다.

다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 연말까지 홀몸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10가구를 대상으로 '다가치·다도맘 밑반찬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합모금을 활용해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월 1~2회에 걸쳐 지사협 위원들이 밑반찬을 직접 만들어 전달한다.

위원들은 최근 10개 가구에 첫 밑반찬으로 돼지고기 장조림, 두부조림 등 3개 밑반찬을 배달했다.

정동안 민간위원장은 "홀몸노인 등 이웃의 영양 건강과 안부를 꼼꼼히 관리할 수 있는 복지특화사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나주=조충권 기자

함평 월야면, 복지기동대 주거환경 개선

함평군 월야면 복지기동대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복지기동 대원들은 오는 15일까지 주거 취약계층 어르신 5가구를 대상으로 청소부터 도배·장판 교체, 수도 배관 작업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선다.

월야면 복지기동대는 민·관협력체로 20여명의 회원들이 다양한 재능기부를 통해 취약계층 집수리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백인상 월야면장은 "대원들의 적극적인 재능봉사로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덕분에 어르신들이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더 따뜻이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함평=윤예중 기자